

‘나는 스스로 행동하며 책임지는 미래의 희망’

남인천여중,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가져

남인천여자중학교(교장 최계열)에서는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아침부터 학생들의 외침으로 교문앞이 떠들썩했다. 사회·역사 교과 교사들과 관련 동아리 학생들이 주도로 ‘자문나무 만들기’, ‘3위를 맞이하!’, ‘외척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재미있고 의미 있는 기념 활동들이 이어졌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년 11월 3일)은 3·1운동, 6·10 만세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힌다.

일제의 탄압에도 조선인 학생 인구의 10분의 1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1930년에 들어서는 전국으로 확산된 대규모 학생 독립 운동이었다. 사회의 큰 주체로서 학생들의 책임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3일 교문앞에서 학생들은 세 가지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유래와 의미를 되새겨 봤다.

‘학생독립운동’을 절대유감 계인으로 의치면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나는 스스로 행동하며 책임지는 미래의 희망입니다’라는 문구를 큰 소리로 외치고, 지문나무에 자신의 지문을 찍는 활동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 의미와 학생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

각 반 교실에서도 담임선생님의 깜짝이벤트가 준비됐다. 학생들 몰래 배달된 아침식사가 교실에 배달됐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아침을 거르고 등교한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든든한 하루를 시작



할 수 있었다. 2학년 한 교실에서는 우크렐레를 연주하는 담임선생님의 이벤트도 볼 수 있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우크렐레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선생님의 모습에 아이들은 박수로 환호했고, 연주를 마친 선생님은 수줍어하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1929년 가을, 조국의 독립을 뜨겁게 바란던 그 당시 학생들의 의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주제적인 시인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학생의 역할을 스스로 고민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인문팀 기자 as@

강화교육지원청, 제11회 갯비고차 탐사 골든벨 대회 실시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대일)은 10월 29일 ‘강화의 종교문화재’를 주제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자체 대회를 거쳐 선발된 학생 40명이 참가하여 ‘제11회 갯비고차 탐사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8월부터 자료개발위원(상당중교 전동중, 강화여고 이연지 교사)과 전문지도위원(안양대 김형우 교수)을 위촉하여 강화의 종교 문화재와 관련된 유적 탐사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위한 워크시트

와 골든벨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탐사 후에는 강화교육지원청 마니산홀에 모여 지도교사와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탐사 유적지에 대한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올해는 유학의 산실이며, 고려·조선시대의 중등교육을 담당했던 강화향교를 시작으로, 서양의 예술양식과 조선의 고유 양식이 결합된 강화성공회성당, 불교 문화재의 보고인 전등사를 연결하여 강화의 종교 문화

재를 직접 살펴보았다. 탐사 후에는 강화교육지원청 마니산홀에 모여 지도교사와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탐사 유적지에 대한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강화의 종교 문화재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문항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여 적격 답을 하며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진지했다.



밝은 미래 열어가는 소중한 시간

인천가좌여중, 행복 한마당 미니스포츠 대회

인천가좌여자중학교(교장 이종태)는 11월 1일 ‘2016년도 행복 한마당 미니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체력 증진과 더불어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교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타구, 배드민턴, 3인 4각, 볼링, 농구, 테니스, 심폐소생술 등의 26가지의 종목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미니스포츠대회를 계획한 김영철 교사는 “이번 대회에서 모든 학생들

이 즐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장점과 더불어 전교직원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나눔·존중·화합의 한마당을 만드는 결과까지 이어 의미 있는 스포츠대회였다”라고 밝혔다.

3학년 박모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원하는 종목에 도전하여 스포츠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미니스포츠대회는 체육 학습을 통한 활동으로 인간 교육의 질적 강화와 신체적, 정신적 육구를 증진시키고 대회를 통하여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기르고, 점점 성장하는 한자녀가 된 가좌여자중학교 학생들 미래의 밝은 모습이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꿈과 끼를 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기대해 본다.

인문팀 기자 as@

기대됩니다, 바른 인재가 만든 더 큰 내일

바른 인재를 기우는 새로운 접근방법.
상지대학교의 바른 인재가 만들어갈
더 큰 내일이 기대됩니다.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위촉식(시흥캠퍼스) 3학년



내꿈과 용기는 현재진행형

상인천중, 제17회 풀무골제 열어

상인천중학교(교장 김홍근)는 11월 2일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이고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의 하나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풀무골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우선 1학년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해 온 각종 전시물을 전시하고 다

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많은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2부에서는 댄스, 노래, 캠페인 퍼포먼스 등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는 공연마당이 펼쳐졌다.

배재성 학생회장은 “상인천인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이 있음을 알게 돼 뿌듯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함께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바른 공동체 의식까지 함양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홍근 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과 끼를 분출하는 모습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특히, 축제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학생이 중심이 돼 운영된 모습에서 주제적인 상인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상인천중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창의적인 학생 문화가 형성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문팀 기자 as@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행정만족도 높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은 수요자 중심의 각종 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난 8월22일부터 10월21일까지 2개월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전반적인 민원처리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지원청 방문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이용 편의성, 업무 처리의 신속·정확성, 공무원의 자세 및 친절도,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15개 항목으로, 항목 평균이 전년 대비 0.4%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민원 응대 담당자의 친절도 97%, 민원 업무 처리 신속성 96%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우수한 수준이나 행정서비스현장의 인지도 및 전화응대 시 복잡한 전화연결과 주차시설 등 고객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으로 남아 행정서비스현장 홍보 활성화 및 전화 응대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주차공간 부족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북부교육지원청 김상진 행정지원 국장은 직원들에게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문팀 기자 as@



등곶길이 즐겁다

신현중, 사랑의 헤그데이 진행

신현중학교(교장 이석봉)에서는 인성교육실천 행복주간을 맞아 11월 1일 ‘즐거는 등곶맞이 헤그데이’ 행사를 가졌다.

전 교직원이 참가해 학생들을 위한 미소와 따뜻한 용어로 맞이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된 이번 행사는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경쾌한 음악, 프리허그 피켓, 캐리커처 촬영 등은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선생님들이 표정과 함께 향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모 학생은 “부끄러워서 다가오는 선생님을 피하려고 했지만, 막상 소용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한 교사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마주하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서 더 즐겁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현중학교 ‘헤그데이’ 행사는 사제 간의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

인문팀 기자 as@